

정무창 광주시의장 “유유녹명으로 소통-협치 앞장”

취임 1년 인터뷰 “협치의 출발은 밀도있는 사전소통” 강조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초선 많고 민주당 일색 우려 불식”

“자치법 개정 불구 의회 ‘반쪽 독립’, 시민참여엔 아쉬움” 피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25일 “밀도있는 사전소통이 협치의 출발이라는 선념과 유유녹명(·鹿鳴)의 정신으로 더불어 잘 사는 광주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제9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뉴시스의 인터뷰에서 “광주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한 타협과 양보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초선이 많고,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일하고 공부하는 문화를 확고히 뿌리 내리고, 의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의회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가 남을 임기 내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반기 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 1년 소회는.

“23명 의원 모두가 동분서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달라진 의회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비행기에 비유하자면 지난 1년은 항로를 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이륙한 시기였다. 이륙할 때는 많이 시끄럽다. 이제부터 순항고도에 접어들어 난기류도 있겠지만 모든 의원이 서로의 전문성과 장·단점을 잘 살려가면서 ‘광주 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확신한다.”

-주요 성과 2~3가지만 꼽는다면.

“감시와 견제 측면에서 의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했다고 본다. 집행부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았고, ‘할 말은 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했고, 전국 우수조례 3관왕 등 입법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수소 트램, 2038 아시안게임, 공공기관 통합 등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며 속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문화가 변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1년 의정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제도과 시민 참여, 소통 문제가 아닐까 싶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반쪽 인사권’이 뼈저린 한계다. 시민참여도 아쉬움이 컸다. 정책토론, 행정감사 제보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진 않다.”

-집행부와 의 소통문제가 종종 도마에 올랐는데 관계 회복을 통한 협치 방안은.

“협치의 출발은 ‘밀도있는 사전소통’이다. 새해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뜨거운 열정이 충돌한 때도 있었지만, 3월 조기 추경 이후로는 ‘광주 발전과 민생’을 위해 현안에 대해서 타협과 양보로 답을 찾아가고 있다. 끊임없이 소통할 생각이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비적대적 모순관계로, 때론 동지적 연대를, 때론 철저한 견제 세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시정이든, 의정이든 시민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시장 눈높이만 볼 게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 맞춰가면 갈등도, 소통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9대 의회 출범 초기 초선 의원들이 많아 걱정이 컸는데.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해소됐다. 오히려 의회문화를 바꾸는데 있어 초선들의 역할이 컸다. 70%를 차지하는 초선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사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치적으로도 빛진 것이 없다는 게 장점이 됐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전반기 남은 1년, 가장 역점을 두는 문제는.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확고히 하고, 의원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상임위 활동을 보좌할 새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에 접목하겠다. 또



시민 참여와 소통 확대,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을 위한 제도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민생경제,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의 상생,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미래차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먹거리 육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사자성어를 인용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자성어는.

“시경 소아 편에 나오는 ‘유유녹명’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사슴은 동물중에 유일하게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고 배고픈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소리 높여 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대동정신이자 협업정신이다. 이를 위한 전제는 사전소통과 양보, 그리고 타협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대의기관 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의장으로서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자평하면 ‘시의회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주시고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린다.”

서선욱기자

서동욱 전남도의회장 “좋은 의안은 현장에 답”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25일 “민생경제 회복, 지방소멸 극복, 국제행사 성공 추진까지 민의를 수렴한 의정 목표 실현에 전력을 쏟아왔다”고 밝혔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인 서 의장은 취임 1년을 맞아 뉴시스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장은 지난 1년 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간담회 122건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성과로 들며,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광주 군공항 전납권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다음은 서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을 맞은 소회는.

1년 간 토론·간담회 122건, 생활밀착 의정

전남 의과대학 설립 의회 내부 역량 총결집

지방의회 조직구성·예산편성 등 향후 과제

“지난 1년은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민생경제 회복, 전남권 의대 설립, 지방소멸 극복, 메가이벤트가 될 국제행사의 성공 추진까지 민의를 수렴한 의정 4대 목표를 정하고 추진에 전력했다. 애정을 갖고 제12대 전남도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고생하는 동료 의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1년 동안 전남도의회 성과와 아쉬운 점은.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의정정책 비전 평가에서 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됐다. 더불어 지난 1년 간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6월 기준으로 총 122건 개최했다. 이는 11대 전반기 2년의 기록인 100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뿌듯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의과대학 유치가 어려운 국면이다. 돌파구는 있는가.

“최근 정부가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의료 취약지 전남의 경우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 반드시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국회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질박성과 결기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비상한 대책을 세우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군공항 전납 이전에 어떤 입장인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생활소음 피해라든지, 위합시설 이전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 인근 지역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확한 민심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이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지역 정치권이 전남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밀착도 높은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정성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정해지리라 생각한

다. 일하는 의회, 하나 되는 의회를 표방하는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초당적 자세를 견지하며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배정에서 소수 정당을 충분히 배려해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동부본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조직개편을 두고 동부권과 서부권 도의원들이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의장으로서 중재안은?

“동부지역본부 확대 조직개편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동부지역은 동부본부 조직 확대를 환영하는 반면 서부지역의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동부청사를 건립해 개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도의회부터 동·서부를 아우르며 균형적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더 활발히 하겠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직 인사에 있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기 힘들다. 자율적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민께 하고 싶은 말은.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원으로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남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더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소통 의정 활성화로 지방소멸 극복, 민생 회복에 매진하는 등 신뢰받는 의정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 앞으로도 제12대 전남도의회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동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